

a 유적 등 매니지먼트 심포지엄 (제 1 회) 개최개요 (실적)

(1) 테마 : “자연적 문화재의 매니지먼트”

(2) 개최 시일 : 2012년 2월 16일 (목) 13:30~17:15 ~ 17일 (금) 9:30~16:15

(3) 개최 장소 : 헤세이궁 [平城宮] 유적자료관 강당 (나라 [奈良] 시 / 사키 [佐紀] 마을)

(4) 사무국 : 나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부 유적정비연구실

(5) 프로그램 (실적) :

2012년 2월 16일 (목)

개회사 오노 겐키치 [小野 健吉] (나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부장)

【취지설명 등】 “자연적 문화재의 매니지먼트” 에 대하여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나라문화재연구소 유적정비연구실장)

【기조강연】 문화재와 자연

가메야마 아키라 [亀山 章] (도쿄농공대학 명예교수)

【강연①】 천연기념물이라는 문화재

가쓰라 유조 [桂 雄三] (문화청 기념물과 천연기념물부문 주임문화재조사관)

【강연②】 한국의 자연 유산의 현황 및 최근 동향

이 위수 [李 偉樹] (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2012년 2월 17일 (금)

【사례연구①】 황새가 유유히 춤추는 고장 [〈일본의 사례 ①〉 효고현 도요오카시]

마쓰이 다카요 [松井 敬代] (도요오카시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주간)

【사례연구②】 한국의 마을숲에 대하여 〈한국의 사례〉

장 미아 [張 美娥] (사단법인 생명의숲 전문위원)

【사례연구③】 이토이가와 지오파크 자연적 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일본의 사례 ②〉]

다케노우치 코 [竹之内 耕] (이토이가와시 교육위원회 박물관 부참사 · 학예계장)

강연 요약 [사무국 (아오키 다쓰지 [青木 達司] / 나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부 주임연구원)]

【종합토론】 《자연적 문화재의 보호》

히라사와 츠요시 / 가쓰라 유조 / 이 위수

마쓰이 다카요 / 장 미아 / 다케노우치 코

좌장 : 히라사와 츠요시

b “자연적 문화재의 매니지먼트” 개최 취지

금년부터 개최되는 『유적 등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심포지엄』은 이전에 개최되었던 『유적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심포지엄』의 성과를 이어받고, 기념물(유적 포함) 및 그 밖의 유산 보호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중형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의 제1회 테마는 「자연적 문화재의 매니지먼트」로서 개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일본의 최근 경향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종합적인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각종 문화유산 보호사업은 문화재 행정 정책의 「역사문화 기본구상」이나 지역활성화 정책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 계획」으로 종합되어 서서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유적 정비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유적의 보존·활용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종합적인 맥락 속에서 검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적·자연적 자산과의 총체적 검토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는 사적이나 건조물 등 비교적 사람들에게 인지되기 쉬운 역사적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이 근본적인 성립 배경으로 여겨 온 자연적 요소, 또는 지역의 풍토를 대표하는 자연적 자산과의 관계를 부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자연적 자산의 파악과 보전은 문화적 자산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 정책의 여러 가지 관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0월 「산인해안 지오파크」가 가맹 인정된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GGN: Global Geopark Network)』, 2011년 6월 「노토의 사토야마사토미」와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의 사토야마」가 등록 결정된 『세계중요농업자원시스템(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제창함)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2010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國際生物多樣性年, International Year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도 그 중요성이 논의된 것 같이 생물다양성,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생활과 문화(또는 표상적인 문화적 자산)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 하에서 문화와 자연유산의 일체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보호에 관한 검토는 이들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해가 보편성을 갖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를 들면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문화가 자연환경 보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문화재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거쳐 종래의 문화재(Cultural Property)를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개칭하게 되었고, 근년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발맞춰 새로운 시도가 실시되던 중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청에서는 특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중요한 명승의 지정과 보호에 대한 검토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자연유산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천연기념물센터(Natural Heritage Center)」를 설립하고,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신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로 다뤄지는 것에 위화감이 있는 천연기념물이나 자연명승 등의 자연적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근년에 그 시책이 크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국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천연기념물과 자연적 명승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검토를 주축으로 양국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자연적 문화재(또는 문화재로서의 자연적 자산)」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자 합니다.

2012년 2월 나라(奈良)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부 유적정비연구실

1. 머릿말

나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부 유적정비연구실에서는 “유적 등 매니지먼트 심포지엄 (제1회)” (이하 ‘심포지엄’)의 테마로 ‘자연적 문화재의 매니지먼트’를 선정하고, 2012년 2월16일 (금)과 17일 (토) 양일간에 걸쳐 강연, 보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최 취지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을 빌려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심포지엄의 구성과 토론 개요를 보고한다.

2. 심포지엄의 구성

심포지엄의 구성은 개최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동향을 토대로 한국과 세계지오파크의 사례를 포함한 강연 3개, 보고 3개, 그리고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2명의 연구자를 초빙하여 일본어 및 한국어를 병행표기한 강연과 보고 자료집, 통역을 갖추어 의사소통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심포지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히라사와 (이하 존칭 생략)가 심포지엄의 개최 취지, 문화재와 관련된 자연의 중요성, 자연적 문화재의 매니지먼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개최취지에서는 ‘문화재’ 및 ‘자연적 문화재’의 여러 관점들을 소개하였고, 문화재와 관련된 자연의 중요성에서는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재료 및 조달의 근원인 자연의 존재방식, 인간·자연과 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심포지엄 테마인 자연적 문화재의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한 후 심포지엄의 기획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심포지엄 첫째 날인 16일에는 ‘문화재와 자연’ (기조 강연: 가메야마 아키라/도쿄농공대학 명예교수), ‘천연기념물이라는 문화재’ (강연1: 가쓰라 유조/문화청 문화재부 기념물과 천연기념물부문 주임문화재조사관), ‘한국의 자연 유산의 현황 및 최근 동향’ (강연2: 이 위수/(전)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의 세 강연을 통해 심포지엄 논의의 기반 (프레임)이 갖추어졌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황새가 유유히 춤추는 고장’ (보고1: 마쓰이 다카요/효고현 도요오카시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주관), ‘한국의 마을숲의 개념과 현황’ (보고2: 장 미아/사단법인 생명의숲 전문위원), ‘이토이가와 지오파크 자연적 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 (보고3: 다케노우치 코/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교육위원회 박물관 부참사 겸 학예계장)의 3가지 보고를 통해 동물, 식물, 지질광물 등 3가지 사례가 보고되었다.

기조강연에서는 ‘자연적 문화재의 특징’을 명승 및 천연기념물, 자연공원, 산림생태계 보호지역의 3가지로 정리하고, 일본의 가미코치 지역을 예를 들어 다양한 유산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일수록 자연적 문화재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징을 자연

성·역사성·심미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밖에 사적·건조물 등의 역사적 문화재를 포함한 ‘지역 문화재의 종합적 파악’의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란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경관으로서 문화재의 지역성을 언급한 것인데 사례로 도쿄의 니시타마군 히노데마치를 들어 지역문화의 특색은 그 장소의 지형·지질·기후·생물·인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연1에서는 ‘문화재군이 보여주는 지역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구·지질→지진·화산·기후·기상→지형·토양→식물→동물→인간→역사→문화→생활 등 인류에 대한 모든 특기할 만한 장면을 기념하는 천연기념물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자연을 토대로 모든 문화재가 성립되어 있으며, 지역의 지식과 지혜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장래 우리들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해의 흔적을 전하는 문화재’에 대한 견해도 피력하였는데 지난 동일본대지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재해열도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지혜를 계승한 상징으로서 문화재 보존과 종합적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강연2에서는 먼저 한국의 자연문화재 정책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면서 특히1990년대 이후 환경정책과의 갈등 속에서 문화재 정책의 전환 및 보완이 필요했던 배경과 그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연적 문화재의 유형과 자연문화재 보호의 목표 등에 관해서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보호 현황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의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과거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문화·자연사 자료의 보존을 통한 문화애호 기회의 확대, 전통적 경관 보전을 통한 국토경관 특성의 활성화 도모, 자연문화재 관련 학술분야의 발전, 전통적 생물자원의 보존 및 활용 기반 구축, 자연유산의 국민적 합의 및 홍보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고1에서는 효고현 도요오카시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도요오카시 이즈시강 [出石川]에서 서식하는 일본장수도롱뇽의 보호, 황새와의 공생, 겐부도 동굴의 정비, 산인해안 지오파크 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자연적 문화재와 지역진흥과의 깊은 연관성을 소개하였다.

보고2에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 보호대상으로 최근 부상하기 시작한 ‘마을숲’에 대하여 그 개념·특징·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보고하였다. 또한 ‘마을숲’의 관리 및 활용 현황, 지역 주민의 반응, 정부기관 (문화재청·산림청·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보고3에서는 대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종합적 이해가 지역진흥과 연결된다는 ‘지오파크’의 이념과 구조가 소개되었다. 이토이가와 지오파크를 사례로 ‘재료’ (대지·생태계·문화)와 ‘활동’ (보호·교육·지오투

어리증)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번 강연과 보고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자연과 문화유산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천연·인공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3. 토론의 논점 및 성과

둘째 날 오후 심포지엄 토론에서는 참가자가 제출한 6개의 질문표를 토대로 강연자 및 보고자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자연적 문화재의 ‘파악과 그 평가’, ‘조사연구와 보호대책’, ‘활용 대책’, ‘관리운영 체제’ 등의 논점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토론에서는 먼저 강연자 및 보고자들에게 심포지엄 주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문화재는 자연과 문화의 양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유대관계 또는 일반인들이 지역에 대한 생각을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심포지엄 토론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의 질문자가 코멘트를 하고, 강연 및 보고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답변과 추가설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적 문화재의 파악’ (엔도 기미히로/나가노현 교육위원회),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자연적 문화재 (특히 천연기념물)의 보호와의 관계’, ‘지오파크 자원의 파악’ (이상 2건, 다카야마 시게키/도야마현 우오즈시 교육위원회), ‘동물의 식해(食害) 문제’ (다카세 요이치/나라문화재연구소 명예연구원), ‘거목·노거수 등의 보존 및 활용’ (구사바 아키노리/사가현 다케오시 교육위원회), ‘자연적 문화재가 주는 혜택의 대처 방안’ (이치하라 이시즈에/자유업), ‘천연기념물·명승 보호와 자연환경 보호의 행정적 차이점과 체제’ (이시카미 노리치카/미에현 구와나시 교육위원회, 다카하시 도모야/와카야마현 교육위원회) 등이다 (필자주: 괄호 안은 질문자의 성명/소속 등)

위의 코멘트와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연적 문화재란 과거에는 눈 앞에 보이는 걸출한 자연의 조형이나 현상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근년에는 사회구조적으로 자연에 대한 시각과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었고, 단순히 눈 앞에 보이는 자연이 아닌 그 배경적 구조에 더 관심을 쏟게 되면서 자연적 문화재의 대상은 단순하게 특정 지을 수 없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존과 활용의 대책도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보호 대책에서도 판단 기준이 틀리는데 전자는 서식 개체수에 따른 보호 대책, 후자는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며, 이것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동일한 경향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에 의한 식해(食害) 문제는 최근 반세기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사회구조나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조화가 깨져 혼란스럽게 변한 부분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심포지엄 토론의 마지막으로는 강연자 및 보고자들에

게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매니지먼트’라는 의미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하였다.

가메야마는 일본국민이 갖고 있는 ‘동물관’이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동물 문제에 비추어 형성되어 온 것을 지적하면서,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 방식은 관점에 따라 바뀐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유에서 문화행정이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무엇을 ‘문화재’로 공유해 나갈 것인가를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바로 ‘매니지먼트’라고 언급하였다.

가쓰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문화재 행정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포인트임을 지적하였다. 이 위수는 자연이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소중함이 생긴다는 명제(命題)를 제시하면서 자연은 한국과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자원이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은 ‘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장미아는 ‘마을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문화재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쓰이는 단 한 마리의 황새가 지역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발전한 사례를 들면서 문화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였다. 다케노우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문화재 매니지먼트란 ‘미래의 인간사회를 위해 문화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①문화재로서의 자연은 항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인지된다는 점 ②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연과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지하려는 경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점 ③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매우 오래 동안 조화롭게 살아왔는데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혼란스럽게 된 것이 자연과 인간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4. 앞으로의 과제

지역의 자연은 그 지역의 생활과 문화의 원천이며 다양한 유산은 지역의 생활과 문화와 함께 생명력을 발휘한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향후 “유적 등 매니지먼트 심포지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유적을 비롯한 문화와 자연유산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지되며, 문화와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존 및 활용, 그리고 지역진흥을 위한 계획의 입안과 대책,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장래에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히라사와 츠요시(나라문화재연구소 유적정비연구실장)